

입학시험 답안지를 자른다.



박재년 숙명여대/이과대학장

우리는 지금 컴퓨터라는 도구와 인터넷이라는 통신 체계를 가지고 새 천년의 무한한 디지털공간시대로 접어들었다. 즉, 공간적인 거리와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모든 물리적인 벽이 컴퓨터의 영상화면을 통해서 없어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매우 새로운 사이버 세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집적화 기술이 무어의 법칙을 깨지 못하고 발전하면서 이제는 도로변과 부엌의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입고 다니는 의복의 섬유 속에도 컴퓨터가 심어지고 숨어지고 또 고속의 무선으로 연결되어서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의 꿈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을 향해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들 컴퓨터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크기와 성능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할 것은 이들 컴퓨터에서 처리되고 유/무선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의 정

약력 : • 독일 입자가속기연구소 • 고려대학교 전자계산소 • 전남대학교 교수 •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이과대학장

확성과 신속성 그리고 보안과 신뢰성 및 공정성이다. 생명처럼 중요한 이들 특성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이들 정보를 처리 운영해야하는 인간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처리절차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 정신이다. 즉 이들 특성은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운영자 그리고 사용자들의 몫인 것이다.

필자가 27년 전인 1976년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고려대학교전자계산소의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입학시험업무를 전산화하면서 위와 관련하여 겪었던 태고적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동시대를 함께 고생했던 우리 정보처리전문가협회의 회원님들과는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되어 원고 원고청탁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리해보기로 하였다.

1973년 개소한 전자계산소의 컴퓨터는 제 2세대인 IBM/1130으로 16비트 컴퓨터였다. 시스템은 16KB기억용량에 1MB 카트리지형 디스크장치 한대와 카드리더/핀처 그리고 라인프린터로 구성되었고 카드소터(card sorter)한대에 천공기3대 그리고 검공기 2대가 전부이었다. 그 당시 부교수 초임 월급이 6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의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도 월 임대료가 190만원이나 되었다. 그런데도 고려대학에 컴퓨터 시대가 처음으로 열리는 것을 알리는 개소식은 총장님과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거창하게 이루어졌다.

이 시스템으로 급여계산, 등록금분개, 수강신청과 성적처리, 학생들의 프로그램실습, 교수들의 통계처리와 기술계산 등의 업무가 처리되었고 부속병원의 급여와 약품재고,

삼양사의 판매와 인사관리, 경방의 급여, 중앙교육의 학력 시험 모의고사, 대림 엔지니어링의 온산 동 체련소 건설 공정관리 등의 시스템을 우리 직원들이 개발하여 처리하면서 기계는 거의 24시간 가동하는 날이 더 많았다. 우리가 개발한 CPM 기법의 공정관리 시스템을 산업공학과 교수 한강변의 수정아파트와 롯데호텔 건설에 이용하였으며 이 무렵 경방의 경리과장이 "내가 하는 일을 뺏어 간 놈이 누구인지 구경하러왔다"고 찾아오기도 하였다.

1976년 3월에 새로 부임한 영문학과의 김진만 교무처장님이 수강신청과 성적처리업무 처리과정을 보려고 6월 중순에 전산소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이방 저방을 안내하여 설명드리고 살펴보던 중 처장님은 키 펀치실에서 천공과 검공 과정에 제일 흥미를 느끼고 감탄하며 놀라워하였다. 즉, 한사람이 자료를 천공기로 카드에 구멍을 뚫고 이를 다른 사람이 검공기로 같은 자료를 다시 치고 나간다. 이때 자료가 전에 천공한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검공기의 신호등이 켜지면서 카드가 진행해 나가지 못하고 정지한다. 이때 천공이 잘못되었으면 카드 가장자리의 잘못된 위치마다 구멍을 뚫어서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이를 천공자가 다시 새로운 카드에 복사해가면서 수정한다. 이런 과정을 흥미 있게 보면서 놀라워하는 것이다.

초여름의 플라타너스 나무의 녹음이 2층 소장실의 창에 드리운 한 낮에 소파에 앉아 처장이 놀란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대학생시절에 영어방송을 들으려고 단파 라디오를 구입해서 어떻게 열심히 채널을 맞추어 BBC 방송을 처음 청취할 때의 기쁨과 지구 반대편에서도 들을 수

있는 기술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감동이 자료의 정확성을 자동으로 찾아서 정정해 주는 기계를 처음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입시 업무가 끝나고 나서 처장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수고했다고 인사한 부서는 키 편치실이었다. 제일 많은 고생은 윤선진, 김종윤 등의 프로그래머였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강웅기 소장님이 입시를 컴퓨터로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고 필자는 전산처리 과정과 교무처에서 해 주어야 할 일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입시를 주관할 실험대학 실장으로 처장님과 함께 온 교육학과의 정우현 교수님은 유학시절 통계처리로 컴퓨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분이였다. 옆에서 필자의 설명을 알아듣고 교무처장에게 보충 설명을 하면서 적극 전산처리를 권유해 주었다. 처장님은 즉시 "나는 입학시험처리 후에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누어있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잘못되면 자신을 포함한 우리 4명은 사표를 내야하니까 사표를 써 놓으라고 하면서 돌아갔다.

1976년 당시에는 학교별로 주관식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대학에서 시험관리가 이루어 졌다. 입시과목은 고려대학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선택의 4과목이었다. 그리고 모집 정원은 1,300명 정도에 경쟁률은 해마다 5나 6대 1 정도이었다.

여름방학 중에 우리는 입학원서의 전산입력양식, 입시대장, 각종 지원자통계보고서, 점수를 입력하기 위한 답안

지의 형식, 답안지 각 권의 겉표지 양식 등의 설계를 교무과의 김중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였다.

그런데 2학기가 시작된 후 교무처장이 전산소에 와서 입시를 전산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비밀로 준비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교무위원회에서 입시처리를 컴퓨터로 할 것이라고 했더니 모두 반대해서 전산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오는 길이라고 하였다. 학내에서 입시의 전산처리 반대의 분위기는 매우 높았다. 교무처장이 들려준 말에 의하면 학교신문 주간교수님이 입시를 컴퓨터로 처리해서는 되지 않을 이유를 11조로 총장께 올렸다는 것이다. 그 11조 중에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일본 대학에서도 못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와 "사람이 해도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기계를 믿을 수 있느냐" 등이다. 이 주간 교수님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연구하시고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철학과의 유명한 교수님이었다.

컴퓨터의 신뢰성을 믿지 못하여 전산화를 불안하게 여기고 비협조적인 부서는 전산화의 대상이 되고 컴퓨터를 가장 잘 이용해야 할 실무 부서의 직원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입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 모범사례를 교직원들에게 보이는 것은 앞으로 학사행정 등의 정보화를 조기에 확산하고 또 전산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전산소가 학교의 부속 기관이 아니라 본부의 핵심부서로 자리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 학기 내내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게 되었다.

그 때 생각에 10년 안에 전자계산소는 "정보기획관리처

또는 정보지원처"등의 이름으로 본부의 중추부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대학들에서 전산소의 위상이 격상되기 시작하였다. 그나마 그것도 교육부의 대학평가 지표에 전산소 위상의 정도가 포함되면서, 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는 대부분의 대학이 "정보통신처"라는 이름으로 위상이 승격되었다.

그러나 대학의 정보가 학사, 행정, 연구 및 교육관련 업무 외에 사이버강의 확장 그리고 고가의 실험실습 장비들이 LAN에 연결되는 시기에 그 위상과 기능이 더욱더 올라야 정보와 컴퓨터관련기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학생과 교수들에게 최상의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입시처리시스템 구축의 전략은 원서 접수, 시험관리 그리고 채점하는 작업은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모든 기장작업과 계산 및 사정자료는 컴퓨터로 한다. 단 입학원서와 수험표로 구성된 입학원서양식에 수험표와 같은 입시관리카드를 제일 오른 쪽에 추가한다. 입시관리 카드는 원서가 접수되는 대로 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입시처리를 비밀로 진행하지 않았으면 접수 장소에서 바로 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카드는 필요치 않은 것이었다. 실제적으로 76년 11월 입시원서 접수 시에는 단과대학 별로 설치된 접수창구에서 접수된 원서를 교무처장방(출입을 엄격히 제한했음)으로 계속 수거했다. 그리고 입시관리카드를 절취하여 전산소에 매시간 마다 보냈다. 그리고 전산소에서는 즉시 천공작업을 했다. 이제는 접수창

구에 무선망으로 연결되는 노트북이 천공기를 대체한 시대가 되었다.

과거에는 점수를 하면서 점수대장을 필기도구로 직원들이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점수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실무책임자인 교무과장이 처장에게 언제 점수대장을 만들 것인지 물어보았다고 한다. 점수 마지막 날에는 수험생수가 많아서 밤늦게까지 천공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우리전산실 프린터에는 한글 글꼴이 없었기 때문에 삼청동에 있는 한국전산(KICO, 현재의 대교정보통신)에 통행금지 시작시간에 임박해서 강웅기 소장님 차로 천공된 카드를 싣고 갔다. 소장님과 우리 전산실 직원은 통금에 묶여서 그 날 밤을 KICO의 소파에서 새우고 다음날 아침 입시대장 8부와 각종 지원자 통계표를 교무처장실로 가져갔다. 이것을 들고 가는 필자를 보고 교무과장이 무엇이나고 물어서 보여 주었더니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야" 면서 놀라는 것이었다.

교무처장은 바로 교무위원들로 구성된 입시관리위원회에 이들 자료를 제출하여 보이고 "교무위원들이 반대해도 앞으로는 입시를 컴퓨터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반대하는 분이 없었다고 하였다.

시험 답안지의 점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별도로 점수대장을 만들지 않고 답안지에서 바로 점수를 입력하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이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이기하고 또 검산하는 작업을 없애서 시간을 단축하고, 숫자보기에 숙달된 편차들이 기계적으로 천공함으로써 입력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문제 지에 총점을 기입할 별도의 공간을 출제할 때 미리 만들어 놓도록 문제지 형식을 표준화했다. 즉, 점수를 답안지에서 바로 입력하기 위해 답안지의 상단에 있는 "지원대학, 학과, 수험번호, 이름"의 순서의 기재 순서를 이름을 먼저 그리고 수험번호를 제일 마지막 오른쪽에 기입하도록 하고 바로 수험번호 아래 총점을 기입할 손바닥 크기의 공간을 두고 출제할 수 있도록 문제지 형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수험번호와 총점 난을 답안지 오른쪽 상단에 만든 이유는 두 가지이었다. 하나는 키 편차가 눈을 항상 한곳에 고정하고 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입력 속도를 빠르게 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천공과정에 이 답안지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없게 하여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안의 의심과 점수를 바꾸어 보고 싶은 작업자 자신의 유혹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에도 어느 시험이든 간에 채점자가 채점과정에서 수험생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채점에 들어가기 전에 각 고사 실(교실) 별로 답안지의 순서를 임의로 바꾼다. 그리고 그 위에 표지를 놓고 그 상단을 두껍고 구부러지지 않는 종이 막대기를 철끈으로 묶고 다시 그 막대에 창호지(또는 스키타이프)를 발라 싸매서 채점과정에서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전에는 채점이 끝나면 이 막대를 풀고 채점된 점수를 수험생 별로 직원선생님들이 성적대장에 기장하고, 기장된 점수를 다시 검토하며, 학생 별로 과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등의 작업을 했다.

그런데 이 답안지의 점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막대를 풀고 수험번호와 점수를 입력하면 수험번호와 점수를 연결

하여 보고 입력하는 전산실의 직원들이 점수를 조작할 수 있다고 의심받아도 아니라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직원들이 부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력과정은 종이 막대를 그대로 밀봉해 두고 먼저 점수만을 입력한 후 막대를 풀고 수험번호만을 추가로 입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당시에 키편지 3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들 입력 작업을 하루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최소 2만4천장의 답안지를 전산실에 놓고 밤을 새우게 한다는 것은 보안과 경비에서 매우 부담되는 일이다. 그래서 키편지 작업을 용역으로 주기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 중대한 답안지가 학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또한 상상할 수도 없고 또 비밀로 진행해야 하는데 답안지가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전산처리는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답안지가 교무처에서 외부로 나가 외부용역회사의 직원들이 시험답안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소문은 퍼질 것이고 수험생은 물론 그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매우 겁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답안지를 잘라내는 것이었다. 즉, 수험번호와 총점 난의 점수만을 잘라내되 수험번호는 잘라내어도 종이 막대가 그 위에 그대로 붙어 있게 답안지를 처음에 묶어 놓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험번호를 예전과 달리 제일 오른쪽에 쓰도록 하였다. 이 때 소심한 처장이었으면 이 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아서 전산처리는 불가능했을 것인데 흔쾌히 허락을 해 주었다. 잘라내어 외부로 가져가더라도 자료 분량이 승용차 한 대의 트렁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밖에서 누가 보아도 그것이

잘려진 시험답안지의 점수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더욱이 전송과정이나 편치과정에서 점수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누가 보아도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답안지를 잘라내어 어느 용역회사에 편치를 의뢰 할 것인지를 문제였다. 일단 교무처장도 한글 때문에 출석부와 학생성적표 등을 출력하고 있는 한국전산은 알고 있지만, 공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제일 큰 KIST에 알아본 결과 이곳에서는 키편치를 모두 Key to Diskette로 교체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디스켓자료를 테이프도 받아서 처리해야하는데 우리는 테이프드라이브가 없고 오직 카드리더만이 입력 장치로 구비하고 있어서 KIST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루 안에 우리의 자료를 키편치 해낼 기관은 KICO이외에 다른 기관이 없었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우리 소장을 믿은 교무처장은 총장이 신뢰할 수 있는 KIST에서 편치작업을 할 것이라고 총장에게 우선 거짓보고를 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가받은 후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밖으로 잘려진 답안지가 나가는 것이 허락되었고 차질 없이 성적과 사정처리 방법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답안지를 잘라낼 도구가 필요했다. 두꺼운 종이 막대와 함께 이것을 규격에 맞게 잘 잘라내야 하지 잘못 잘라서 점수가 잘려나간다면 하도 낭패이기 때문이다. 표지에는 전산처리를 한다는 힌트가 없어야하기 때문에 종전에 사용하는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절취선을 표지용지에 미리 표시할 수 없었다. 한약방에서

약초를 썬 작두는 아니 되겠고 그렇다고 가위나 일반 칼로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답안지의 잘라 낼 크기에 맞는 "ㄴ"자형 칼을 대장간에 특별히 주문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이 방법은 답안지 표지의 가장자리의 양끝에 칼끝을 맞추어 한 사람이 그 자루를 붙잡고 다른 사람이 망치로 그 칼을 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채점이 완료된 후에는 고사장 별로 봉해진 답안지 철은 직원들이 점수합산을 검산하고 또 총점 난에 점수가 잘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처장실로 가져오게 하였다. 정우현 교수님이 답안지표지에 암호를 기재하고, 이 암호와 함께 시험교시를 써넣은 종이 쪽지를 답안지의 잘라낼 위치에 붙이는 작업을 했다. 이 암호는 나중에 잘리기 전의 답안지와 쉽게 연결하여 차후에 있을 감사에 대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암호는 수험생과 시험감독관들에게 배포되는 고사장 배치 표에 일련번호를 붙인 것이다. 그런데 이 일련번호는 정교수님 맘대로 만들어서 붙이기 때문에 정교수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암호인 것이다. 점수만을 모두 키편치 한 후에야 이 암호는 공개될 수 있었다. 이들 암호는 편치된 수험번호를 에디트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 암호 방법은 97년도에 학교에 새로 설치된 월 임대료 700만원 정도인 IBM370/115(192KB 기억용량)시스템에서도 확대되어 적용되었다. 즉, 시험 답안지를 봉할 때 번호를 뒤섞지 않고 고사장 별로 번호순대로 묶어서 암호와 시험교시를 헤더정보로 하여 점수만 입력한 후 이 암호를 수험번호와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수험 번호는 전혀 입력하지 않고 점수 2자리만을 키편치 하게 되어 답안

지를 잘라내지 않고 학내에서 처리할 수 있었다.

교수들이 채점하는 동안 우리는 펀치작업의 외주를 KICO의 이상준 부장님께 부탁하였다. 일요일을 택해서 KICO의 전 키펀처들을 동원하여 우리 자료만 천공해 줄 것과 또 검공을 2번해줄 것을 부탁하고 당시 카드 한 장에 7원인 천공요금을 2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날짜를 정하였다. 그런데 잘라내진 답안지의 위 부분이 50장정도 묶어져 있고 또 종이크기가 손바닥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종이를 넘기기가 불편해져서 천공속도가 상상의외로 느려졌다. 펀치 량이 3,000장 정도이기 때문에 80명의 키펀처가 오전 중에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침 8시부터 시작한 작업이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나게 되었다. 키펀처들에게는 매우 미안했지만 미처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이상준 박사로부터 종이 넘기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한 어려운 작업을 너무 싸게 한 것이라고 항의도 받았다.

답안지를 잘라내는 작업은 채점이 완료된 후 표지에 암호 붙이는 작업을 하고 교무처장실에서 저녁 식사 후부터 4개의 팀으로 나누어 행해졌다. 처음에 직원들은 자루가 달린 "ㄴ"자 칼과 망치를 보고 의아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곧 한사람은 칼을 대고 다른 사람은 망치질을 하면서 "그간에 쌓였던 피로가 망치를 내려치면서 기분이 풀려진 다"고 농담까지 하면서 재미있게 잘라내었다. 그런데 "ㄴ"자 칼의 한쪽 좀 긴 부분 즉, 종이 막대로 가려진 부분 쪽의 칼날을 두드리면 "ㄴ"자로 답안지가 잘려서 나올 것으

로 생각했는데 종이가 의외로 한번에 잘라지지 않고 또 갈수록 칼날이 빠르게 무디어져서 망치질을 양쪽의 두 날에 각각 해야 했으므로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그날 밤 처장실의 경비는 교무처 직원2명이 담당하고 통행금지 시간에 임박해서 다른 사람들은 퇴근을 할 수 있었다. 다음날 일요일 아침 일찍 교무처장이 운전하는 차의 트렁크에 잘라진 답안지를 카드박스에 담아 가득 싣고 KICO로 가서 긴장되는 하루를 보내야 했다.

그 날 밤늦게 학교로 돌아온 우리는 미리 연습해 본 대로 교무처장님과 입시담당 선생님의 감시 하에 성적처리를 하고 사정대장과 성적분포 통계표 등 각종 통계표를 출력하였다. 이때 전산소 직원은 오퍼레이터만 기계실에 들어가 프로그램을 수행시키게 하고 프린터에는 근처에도 접근을 불허하였다.

교무처장이 결과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모든 출력자료와 입시관련 프로그램과 자료가 저장된 카트리지 디스크를 가지고 나가면서 "나 이제 행방불명되네, 어느 여관으로 갈지 몰라" 하면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떠났다. 그리고 전산소에는 편치된 입시관련 카드자료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전자계산소직원들이 입시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게 되었다. 우리의 입시처리 과정에서 특별한 점은 입시관련 종사자들을 과거처럼 합격자 발표 때까지 특별한 장소에 감금하지 않아도 보안이 유지되도록 하여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전남대학교와 현재의 숙명여자

대학에서도 직원들을 입시 때마다 별도의 장소에 감금하는 일은 없도록 하였다.

합격자 발표를 전산처리 다음날 바로 할 수 있는 데도, 두 분이 연락해 볼 수도 없이 정말로 사라져서 어떤 생각지 않은 오류가 나타날지 무소식이 희소식으로 알고 시간이 지나 갔다. 결과적으로 합격자 발표를 예정일 보다 한 10일 앞당기어 다른 대학들 보다 훨씬 빨리 발표하게 되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오후에 전산처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고 하였던 학교 신보사 주간교수님이 학생 기자들을 데리고 전산소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하였는지 그 방법과 과정을 질문하고 돌아가면서 이를 학교신문에 글로 써 달라고 하였다. 필자는 강웅기 소장 이름으로 입시처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그리고 정보보안 방법을 위주로 해서 기고하여 학교신문에 실리기도 하였다.

입시 때마다 본관 건물은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면서 학교의 가장 큰 행사로 잔치 집 같았었는데 너무 조용해서 허전하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 입시가 전산화의 신뢰성과 필요성을 학내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실감했고, 그 동안의 긴장과 피로가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어 졌다.

이렇게 기획하고 시작한 입시업무를 해마다 관계하게 되어서 2000년도까지 25년 이상을 크리스마스 와 연말연시를 입시업무 때문에 쉬어본 적이 없이 세월이 흘러갔고, 입시의 모습도 인터넷 접수에서부터 수시 모집까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보아오고 있다.

어떤 일이든 정보처리의 신뢰성과 객관성 그리고 정보 보안 방법을 확보한 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경험을 소개하려고 하였는데 써놓고 보니 너무 두서없는 글이 된 것 같다.

끝으로 결단과 포용과 열정으로 고려대학 전산소의 초석을 쌓는데 헌신하시고 필자에게도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고 강웅기 소장님과 IBM/370의 도입을 허락해주신 고 김상협 총장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리고 당시 사무처장으로 전산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준범 총장님과 많은 고생을 함께해준 전산소 식구들에게도 그 당시 하지 못한 감사 말을 올린다.